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9. 11(화) / 총 1매(본문1)</b>
<b>담당 부서</b>	건축정책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최대경, 주무관 정치영</li> <li>• ☎ (044) 201-3755, 4082, 4752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

- 우리 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('18.7.31~9.9) 하였습니다.
-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, 우리 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9.10, 서울경제) >

- ◆ [산으로 간 건물안전법] 지진 견고도 설익은 대책 난무... '안전 불감증'에 악몽 되풀이
  - 이 법안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. 건축사들은 1,000명 밖에 되지 않은 구조기술사가 건물 감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. 반면 구조기술사는 건물 구조가 특수해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. 무엇보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에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추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욱 키웠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